

“인사·특채 비리 터지나” 광주시 흥흥

26일까지 특별감사... 피해 직원 제보 잇따라 파장 우려

광주시의 인사 및 특채 관련 감사원 감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달 21일부터 29일까지 예비감사를 통해 직원 제보와 관련 자료 입수를 마치고, 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본감사에 착수했다.

예비감사기간 그 동안 승진에서 누락된 직원들의 제보가 잇따랐으며, 고위층의 인사 및 채용 지시가 담긴 메모를 감사원 직원이 입수해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과거 인사 및 특채과

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이번 감사원 감사의 주 대상은 지난 2006년부터 5년 간 시청 내 인사 및 무기계약직·기능직·계약직 등의 특채과정이 다. 2명의 감사원 직원은 승진 인사의 형평성, 채용의 공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광주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무기계약직에서 기능직으로, 또는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직원들의 제보가 집중됐고, 5년 간 이뤄진 승진인사에 대한 문제점도 감사원에서 상당부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광주시 한 직원은 “업무와 상관 없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고위층의 친인척을 특정한 자리에 집어넣는 등 특채에 각종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 등은 그야말로 인사권자 마음대로 뽑을 수 있어 애초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예비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이 전 광주시장의 지시가 담긴 메모를 입수해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잠재돼 있던 ‘인사·특채 비리’가 불거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 대상이 공채가 아닌 모든 특채인데다 승진 등 인사 분야까지 포함돼 있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감사원 직원들이 마치 족집게처럼 일부 인사 및 특채에 대해서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해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어 파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인도네시아 화산 또 폭발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앙에 있는 머라발 화산(해발 2,914m)이 1일 오전 10시경 다시 폭발해 화산재를 1km 높이까지 뿜어냈다. 한 여성이 화산재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중부자바 주(州)와 족자카르타 주에 걸쳐 있는 이 화산은 지난달 26일 첫 폭발한 이래 여러차례 폭발해 현재까지 38명이 숨지고 5만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돈 아끼고 지구도 살리자”

광주 탄소은행제 참여 5만가구 돌파

광주지역 10세대 중 1곳은 탄소은행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도입된 탄소은행 제도에 현재까지 5만2000여 가구가 참여를 신청했다. 이는 광주 전체 52만 4000여 가구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탄소은행제에 참여하면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따라 쌓인 탄소포인트를 받아 현금화할 수 있다.

전력 사용량을 전년보다 5% 이하로 절감했다면 1kW당 50원, 5% 초과 시 1kW당 70원의

포인트를, 가스는 5% 이하 절감 때 1m당 12원, 5% 초과할 때 1m당 20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개별 주민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꾸준히 홍보하면서 지난해부터 가입 세대가 급증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이 제도에 참여한 3만 6000가구 가운데 2만4000가구가 실제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줄여 1년간 4752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인권도시 추진 TF’ 구성

오늘 워크숍 등 본격활동 돌입

광주시가 지역 내 각계 인권전문가들로 ‘인권도시 추진 원탁회의 TF팀’을 구성했다.

이 TF팀에서는 구체적인 인권도시 추진 전략과 인권지수를 개발하고, 실천방향 등에 대해 수시로 자문하고 광주시와 협의할 예정이다.

1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인권도시 추진 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수,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 시민단체 대표 등을 망라해 이론과 실무적인 능력을 겸비

한 18명의 인권 전문가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은우근 광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TF팀은 2일 오후 5~18교육관에서 UN지정 인권도시 건설에 대한 주제발제와 자유토론 방식의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워크숍에서는 은 교수의 ‘인권도시를 위한 구상’과 이경률 서구장예인협회 이사장의 ‘인권도시 정의와 실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의 특별강연이 이어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李대통령, G20 4대 의제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4대 의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5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환율 ▲글로벌 금융안정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을 오는 11~12일 개최되는 서울 G20정상회의의 4대 의제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환율 갈등 조정을 첫번째 의제로 제시하고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을 향한 청신호가 켜져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회복기를 맞은 세계경제가 보다 균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그 결실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금융안정과 관

련, “우리는 1998년 외환위기때 2만여개 기업이 부도가 나고 100여만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아픔을 겪었다”면서 “위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세계가 협력하여 튼튼한 글로벌 금융안정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그동안 IMF(국제통화기금)는 선진국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며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각 나라의 실력과 규모에 맞게 발언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 지원 등 개발에 관련해서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도와주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세계경제 질서, 공정한 지구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브라질 첫 女대통령 탄생

남미 최대국 브라질에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치러진 제40대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산 투표에서 집권 노동자당(PT) 후보인 지우마 호세프(여·62)가 제1 야당인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후보인 조제 세하(68)를 12%포인트 넘는 큰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호세프 당선자는 내년 1월 1일 공식 취임식을 하고 톨라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게 된다. 브라질에서 여성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왕정 폐지 및 공화정 출범 121년 만에 호세프 당선자가 처음이다.

/연합뉴스



“중산층·상류층 올라가는 사다리 사라졌다”

소득계층간 이동성 줄어 빈곤 대물림 우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소득계층간 이동성이 급격히 줄면서 중산층, 또는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사회적 이동성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소득계층 상승, 또는 하락을 경험한 가구가 1990~1997년 사이에 28%에 이르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8~2002년에는 30.3%로 늘어난 뒤 2003~2008년 사이에는 27.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계청 도시가계자료 조사를 이용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소득자위를 빈곤

층, 중하층, 중상층, 상위층 등 4계층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특히 계층 상승을 경험한 빈곤층이 1990~1997년 43.6%에서 2003~2008년 31.1%로 줄어든 반면 빈곤층으로 떨어진 중하층은 1990~1997년 12%에서 2003~2008년 17.6%로 늘어났다.

계층 이동성의 저하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빈곤층이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도시근로자 가구가 빈곤층에서 벗어날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1999년 빈곤층에 속했다가 2000년에 빈곤층에 벗어난 가구는 48.

9%에 달했으나 이런 빈곤탈출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2007년과 2008년간 빈곤탈출률은 31.8%까지 떨어졌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간에 소득계층이 ‘세습’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아버지 1천349명과 자녀 1천586명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부모의 소득계층에 비해 자녀가 상향 이동한 경우는 33.1%, 하향 이동한 경우는 33.6%, 대물림하는 경우는 33.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이 향후 계층지위의 세대간 이전 양상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능하는 요인이 된다”며 “현재의 교육이 하위 계층의 학생을 소외시킴으로써 계층지위가 세습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땡큐죠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에 신경 쓰이면 효과가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를 사용해 하니다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18세~65세 남성) 170명 대상 임상시험 결과, 모발 개수와 굵기가 증가되어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

■ 마이녹실 임상결과

참여자의 92.9%가 효과 확인

구분	효과 확인률
매우호전	2.94%
호전	27.65%
약간호전	62.35%
기타(호전없음, 악화)	7.06%

전국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마이녹실 5% 24주간 임상시험 결과, 158명 중 92.9%가 호전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우호전 5명(2.94%), 호전 47명(27.65%), 약간호전 106명(62.35%)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 대한 5% Minoxidil 외용액의 공개 다기관 임상연구(제4상 임상시험,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 대한 피부과학회지 2009년 3월호 발표

■ 임상연구 참여기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관동대학교 명지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상 가다나 순) 14개 대학병원 피부과 공동참여

바르는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1일 2회 4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십시오

검색어: 검색

제품문의 | 080-024-5525
02-2600-3884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